

지난해 총 15만종 도서 발행

팩션소설과 전기문학 강세

글 서주현 북코스모스 저작권팀 영미권 담당

2006년도에는 미국에서만 총 15만종이 넘는 도서가 쏟아져 나와 이제껏 가장 많은 책이 출간된 해로 기록됐다. <뉴욕타임스> 북 리뷰는 지난 25년 중 최고의 소설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경쟁자를 물리칠 작품으로 토니 모리슨의 《Beloved》를 선정했다.

2006년은 사실도 새로운 픽션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소설 속에 녹아낸 작품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토머스 핀천의 기념비적인 작품 《Against the Day》는 올해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작가는 1,110 페이지에 걸쳐 198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의 혼란에 대해 열정적인 터치로 그리고 있다.

9·11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많았는데, 2001년 맨하탄의 화려함을 배경으로 9·11 이후 냉정을 찾은 뉴욕에 대해 풍속 희극의 형식으로 그린 클레어 메서드의 《The Emperor's Children》, 통렬한 풍자를 담아 블랙 코미디의 형식을 빌어 9·11에 대해 그린 캔 칼푸스의 《A Disorder Peculiar to the Country》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한 제이 맥너니는 《The Good Life》에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Twilight of the Superheroes》에서 데보라 이젠버그는 9·11 이후의 뉴욕에서부터 잔인한 사랑에 빠진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애정과 연민에 대한 6개의 치밀한 이야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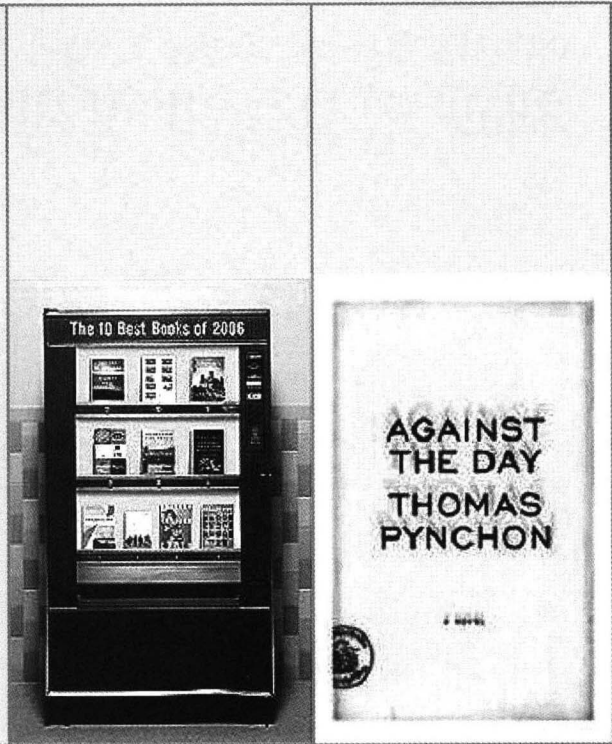
감성적인 소설들도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리차드 포드

(Richard Ford)는 《The Lay of the Land》에서 무심한 문지기인 주인공 프랭크를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The Road》의 작가, 코맥 맥카시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와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심오하며 구슬픈 감성을 묘사하며 독자들을 핵실험 이후의 죽어가는 세계에의 탐험으로 초대한다.

엘리스 맥터모트는 《After This》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꼼꼼한 회상 스타일과 감성으로 한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스코틀랜드계 작가인 알리 스미스는 매력적이고도 선율이 아름다운 《The Accidental》에서 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시심, 형이상학, 영화, 그리고 인간의 기대에 대해 간결한 터치로 그리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일어난 차 사고로 인해 생기는 뇌 질환을 그린 감성적인 소설로 인간 지능의 힘과 한계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전미도서상 픽션 부문 당선작, 리차드 파워의 《The Echo Maker》(Farrar, Straus & Giroux)도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라 하겠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도서로 전미도서상 논픽션 부문 당선작, 티모시 이건의 《The Worst Hard Time》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하이 플레인스를 강타한 먼지 폭풍 속에서 생존했던 더스트 바울의 눈을 통해 그 당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그 외 2006년의 주목할만한 논픽션들은 밥 우드워드의



《State of Denial: Bush at War, Part III》, 토머스 리스의 《Fiasco》, 로렌스 라이트의 《The Looming Tower: Al-Qaeda and the Road to 9·11》처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부시 정권의 군사적 정치적 실수를 다룬 책들이 많았다. 또한 전쟁과 그 여파를 그 주제로 한 도서들 또한 주목 받았는데, 영국 청교도 단과 전쟁을 소재로 한 나다니엘 필브릭의 《Mayflower: A Story of Courage, Community, and War》, 유대인 대학살 시절, 폴란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을 그리며 숨막히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다니엘 멘델손의 《The Lost: A Search for Six of Six Million》, 제목 그대로 냉전에 대해 파헤친 수작, 존 루이스 가디스의 《The Cold War: A New History》 등이 그 대표적인 도서들이다.

2006년은 전기문학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인 해였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나소우의 《Andrew Carnegie》와 데이비드 케너던의 《Mellon: An American Life》이다. 두 작품은 뛰어난 전기 작가들이 미국의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즉 위대한 실업가였던 카네기와 위대한 은행가였던 멜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에 대해 연구하고 발견했던 내용과 그 당시 사용한 도구들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 데일 피터슨의 《Jane Goodall: The Woman Who Redefined Man》에서는 제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 두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다룬 테일러 브랜치의 《At Canaan's Edge: America in the King Years 1965-1968》은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한 저널리스트인 짐 뉴턴은 《Justice for All: Earl Warren and the Nation He Made》을 통해 동 시대 마틴 루터 킹 만큼 비범한 인물이었던 얼 워렌에 대해 그리고 있다.

미국 최고의 도서들을 통해 우리는 책은 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출판시장에서도 올해의 키워드 선정 작업을 통해 2006년 한 해의 출판계를 돌아보고자 했는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는 출판계의 키워드로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나만의 행복추구'를 꼽았고, 《TV책을 말하다》에서는 '괴물, 명왕성, 핵, 양극화, 공부하세요, FUN, 하인즈 워드' 등을 2006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선정, 관련된 책들도 함께 지정했다.

2007년의 키워드와 2007년을 선도할 도서는 과연 어떤 책이 될까? 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단 한국 출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흐름과 트렌드를 잡아내는 눈을 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문**